

# 적정 벼 재배면적 3만ha 초과... 쌀값 하락·재정손실 우려

통계청, 올 벼 재배면적 70.8ha 전년비 2.6% 감소... 역대 최소 기록  
농·가·농·가 등으로 전환 재배 유도  
농식품부, 3.7만ha 감축 달성 실패  
추후 작황 따라 생산규모 변동 있어



올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하며, 수확기 쌀값이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80kg당 20만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 8041ha로 지난해보다 1만9013ha(2.6%) 줄었다. 지난 3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적정 벼 재배면적을 약 3만헥타르(ha)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쌀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41헥타르(ha)로 전년(72만7054ha)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면적이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4년까지 100만헥타르 수준이었으나, 이후 거의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쌀 생산량 감

소가 쌀 수요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면 구조적인 쌀 과잉과 그에 따른 쌀값 하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산 쌀 생산량의 경우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지난해 쌀값은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

393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벼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함께 정부가 45만톤 규모의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며 재정 손실도 크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논농이나

가루쌀 등으로 전환 재배를 유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 논농 또는 가루쌀 재배시 헥타르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 콩이나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은 벼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전락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합동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하고 재배면적을 3만7000헥타르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실제로는 1만9000헥타르 감축에 그치면서 정부는 예상 벼 재배면적보다 약 3만헥타르 초과했다.

우리나라 벼 경작면적당 쌀 생산량이 헥타르 당 7114kg으로, 평년 수준 작황을 기록할 경우 쌀 21만3420톤이 과잉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산지 쌀값이 약 5% 하락할 경우 격리비용은 약 44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후 기상여건 등에 따른 작황에 따라 쌀 과잉 생산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이 적정 재배면적인 68만헥타르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까지 작황이 중요하다”며 “쌀 수급간 쌀값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을 추진한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정부양곡 매입비를 1조7124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대비 5만톤 증가한 45만톤을 매입한다. 추가 매입 양곡은 주로 해외 식량 위기에 대한 원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해수부,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점검

황금연휴 여객선 이용객 증가 예상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중점



구명뗏목 고정장치 등 설비관리실태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을 하는 모습.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추석연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 인과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정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다. 추석연휴 전까지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

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일반인 15명이다.

해수부는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검역본부, 소·돼지고기 이력관리 단속

3개 업종 중점... 최대 500만원 벌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돼 전국 3개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 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현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립공원 국립공원 탐방객 대상 ‘탄소중립 주간’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3일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10일 기간에 탐방객이 국립공원 내에서 대화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을 체감하는 연례행사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의 주제는 저탄소·친환경 탐방과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ing)’ 등 3R의 실천이다. 북한산과 설악산·덕유산·지리산·한려해상 등 국내 모든 국립공원에서 실시된다.

공단은 “우선 9월4일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관측을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계절 보물찾기 프로젝트(가을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 CEO-임직원 소통 가져

이학재 사장·직원 30명 간담회 참여  
MBTI부터 경영목표 등 질의응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학재 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CEO-임직원 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이 사장과 공사 내 다양한 직급·직무 분야의 직원 30명이 참여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M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MBTI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부터 조직문화 발전방안, CEO 임기 내 경영목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CEO 경영철학 및 조직문화 발전방안 등을 공유했다.

“취임 전후 인천공항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다”는 직원의 질문에 이 사장은 “취임 전에 국토교통부에 오래 있어서 인천공항을 잘 알고 고 생각했고,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 인

천공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항상 자랑스러운 공항으로 생각해왔다”며 “들어와 보니 이 성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반인은 알기 힘든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맡은 바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사장이 임기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하다는 직원의 질문에 그는 “4단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이 중대한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공항이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경영평가 1위였으나, 그간 코로나로 인한 재구조 악화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기 중 정부경영평가 최고등급 재달성을 통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농식품부, 전후방산업 수출기업 격려 나서

‘K-푸드 플러스 수출탑’ 첫 운영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기업을 시상하는 수출탑이 신설된다. 수상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 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해 오는 12월 시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역불대와 천만불대 수출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 기업에는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또 전년 대비 수출실적증가율이 높은 기업에는 도약탑을,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라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에 처음 열리는 수출탑 시상식에서는 수출진흥 유공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 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